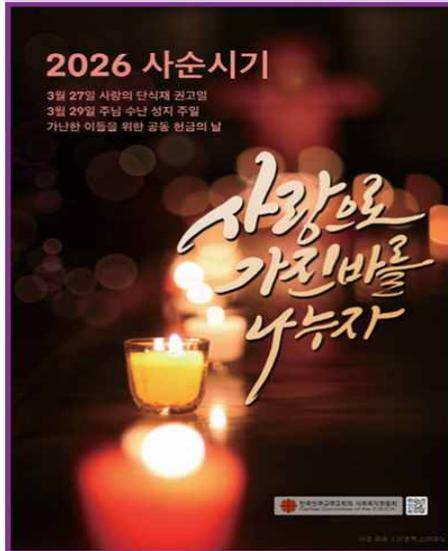


저 자 씨

◆제1618호◆

Korean Catholic Community, 1259 Upper Serangoon Road, Singapore 534795 Tel: 6288-9771 Fax: 6288-9551

2026년 2월 22일(가해) 사순 제1주일



2026년 사순시기 포스터

입 당 송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제 1 독 서 창세 2,7-9; 3,1-7 <사람의 창조와 원조들의 죄>



화 답 송

주님 당신께 죄 - 를 지었 사오 니 저희 를 불쌍 히 여 기 소 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제 2 독 서 로마 5,12-19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복 음 환 호 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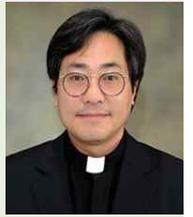
말 씩 이 - 신 크 리 - 스 도 님 찬 미 받 으 소 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 음 마태 4,1-11 <예수님께서서는 사십 일을 단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신다.>

영 성 체 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오늘의 성가 입당송: 115 봉헌: 216 · 212 성체: 498 · 154 파견: 119

주님!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방기태 루이스 신부
입암 본당 주임



오늘 사순 제1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서 40일간의 단식의 고행 중에 유혹자에게 유혹을 받으시게 되는 내용이 담긴 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유혹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혹자 역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 3,17)”** 라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유혹자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혹자는 비장의 세가지 필살기(必殺技)를 준비해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 임마누엘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혹자는 아무리 하느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사람의 육신을 취한 이상, 인간이 자신의 유혹에 얼마나 허무하고 나약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하느님께 입증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폴턴 J.원저 주교님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유혹을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도입시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생 내내 세 가지 유혹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육적 유혹입니다(육욕과 탐식). 두 번째는 정신적 유혹입니다(교만과 시기). 세 번째

는 **우상적인 유혹**입니다(물욕). 젊은 시절에는 순결(정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유혹을 받으며 육체에 대한 죄를 짓기 쉽습니다. 중년이 되면 육체적인 욕구가 점점 쇠퇴해 가고, 정신적인 유혹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즉 과시욕이나 권력욕과 같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소유욕에 대한 유혹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인간은 현세의 재물을 축적하여 경제적인 안전을 배가시킴으로써 영원한 생활의 안전이나 구원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폴턴 J.원저, 강영식 역, 요셉 출판사, P88>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유혹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을 만큼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줄 거룩한 장소가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네 세상살이는 유혹자의 유혹으로부터 한시라도 벗어날 수 없는 유혹의 장벽 안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걸 너무도 잘 아셨던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이겨낼 힘이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유혹을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 4,4). 唯向主望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마태 4,7). 唯向主信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마태 4,10). 唯向主愛

■ 소공동체 모임 일정(2월 23일 ~ 3월1일)

날짜	시간	구역/반	주소	이름	
2/23(월)	10:00	2구역 2반	Reflections	어정 에스텔	
	10:30	4구역 4반	27 Hazel park Terrace 04-02	전연경 낸시	
2/24(화)	10:30	10:00	5구역 3반	Blk 436A Northshore drive	최정화 크리스티나
		2구역 5반	The grange	목정숙 마리세실리아	
		1구역 1반	D'Leedon function room	김효정 패트리샤	
		5구역 1반	4 Ang mo kio cental3	홍지수 베로니카	
		5구역 4반	11Gilstead rd,Morimasa garden	이리라 비비나	



생명 보호와 생태적 회개의 은총을 청하며

2026년, 하느님 백성 모두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천상탄일 800주기를 맞아 은총의 특별 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작은 자’ 로 불리운 성인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덕인 겸손과 가난을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니다.

지금, 고개를 돌려 마주한 우리 공동의 집은 처절한 신음을 하고 있으며, 작고 힘없는 생명들은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며, 우리가 외면했던 생명의 가치와 창조 세계의 눈물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번 사순절을 맞아 다시 한번 ‘생명 보호’ 와 ‘생태적 회개’ 에 대한 깊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시니 좋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개념 없는 무절제한 삶의 방식으로 인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간의 죄는 더 이상 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뿐 아니라 대자연 전반에 되돌리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넘어, 하느님과 이웃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영적 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회개’ 는 가장 약한 생명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며, 창조 세계를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태적 회개’ 의 통찰은 하느님과의 평화, 인간 사이의 평화,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평화로 이어져 보편적인 화해를 향한 하나의 부르심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인류는 인간 생명을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의 규범으로 받아들여 왔으므로, 우리 사회도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하느님 백성 모두는 이 길에 함께 앞장서서 생명 보호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순 시기는 절제와 단식, 기도와 자선을 통해 삶의 방식을 바꾸어 **저 너머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작은 실천을 선택하며, 생명을 살리는 결단을 일상에서 실천할 때, 생명 보호 노력과 생태적 회개는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를 낳고, 이러한 변화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라고 하신 세상으로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사순 시기는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기도와 실천으로 응답하는 **춘천교구 하느님 백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춘천주교 김주영 시몬

■ 소공동체 모임 일정(2월 23일 ~ 3월1일)

날짜	시간	구역/반	주소	이름
2/24(화)	11:00	2구역 3반	Rivergate	한옥길 안젤라메리치
		3구역 3반	28 pasir ris link	이난주 크리스티나
2/26(목)	10:30	1구역 3반	6 Ridgewood cl, the Trizon #10-06	이혜숙 미카엘라
2/27(금)	11:00	4구역 2반	Hillside Condo Function room	이윤경 데레사